

#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 미 려(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박사과정)

김 영 순(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결혼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정의 통합지원정책의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 (self-reported)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30일부터 9월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에서 설문지는 한국어 외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부실한 74부를 제외한 126부를 최종설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1)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적은 베트남이 31.75%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연령차는 평균 약 10세,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약 41개월, 자녀수는 약 1.16명이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보통수준에 못미쳤으며, 자아정체감은 보통, 이주생활심리적적응도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평균 보통이상의 관계를 보인 반면 시부모와의 관계와 결혼생활적응도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이 남편의 학력과 차이가 클수록, 이주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월세 기타보다는 자가에 거주할 때,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이주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질 때 보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질 때 시부모와의 관계가 좋았으며, 시부모와 동거할 때, 이주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시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주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에는 자가유무, 남편학력, 이주생활심리적응도, 사회적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가에 거주할 때,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이주생활심리적응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사회적관계는 낮을수록 결혼생활적응도가 높다고 나타났으나, 배우자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는 좋을수록 결혼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정 내의 관계는 결혼생활적응도에 정적영향을 미친 반면, 가정외의 관계는 결혼생활적응도에 부적영향을 미쳐 사회적관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